

뿔난 소비자들 “원가 부담 떠넘기지 말라”

식품업체들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가격 대폭 인상

소비자단체 장비구니 물가 큰 영향... 적극 대응키로

소비자들이 뿔났다. 최근 식품업체들의 잇따른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원가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연말연시를 틈타 과자 및 음료가격 기습 인상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뚜렷한 산출근거 없이 식품업체들이 소비자 가격 인상을 들먹이고 있다”며 “특히 비인기 제품은 동결하면서 인기 제품은 인상하는 방법으로 장비구니 물가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롯데칠성음은 칠성사이다·펄시콜라·칸타타·게토레이 등 14개 제품, 농심은 새우깡·양파링·가갈치·수미칩·바나나칩 등 15개 제품, 삼립식품은 빵류 703종 중 175종의 가격을 무더기 인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2012년과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와 1.3%였는데도 기업들이 인건비,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격을 인상한 기업들이 대부분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으면서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제품 가격을 인상해 손쉽게 회사 이익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롯데칠성음은 2012년 영업이익률이 7.7%, 2013년 3분기 8.9%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자신들이 가격인상 근거로 든 인건비 인상율도 전년동기 대비 낮았다는 게 센터의 분석이다.

특히 가격조사 결과 펄시콜라는 2010년1월~2014년1월까지 평균 소비자가격이 74.1% 급등했으며 코카콜라는 2012년 영업이익률 8.9%, 2013년 3분기 영업이익률 9.3%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2010년1월~2014년1월까지 평균 소비자가격은 48.9%나 인상했다고 비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아울러 삼립식품은 영업이익

률이 최근 3년간 증가했고 사니와 호남사니가 2011년 4월이후 제품 대부분을 직접 판매하면서 2012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27.6%, 영업이익이 68.8% 상승하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2012년 매출 기준으로 양산빵 시장의 주요 제조 3사 중 삼립식품 계열사가 매출액의 87%를 차지하고 있다며 삼립 계열사가 독보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을 대폭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대형식품사들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기업의 원가인상이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쌀 구입 ‘품질’보다 ‘생산년도’

한국소비자원 조사... 정보 활용도 낮아

소비자, 등급 등 표시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들이 쌀을 구입할 때 ‘생산년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품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소비자(434명)를 대상으로 쌀 구입할 때 고려하는 기준을 조사한 결과, ‘생산년도’가 3.13점(4점 척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도정연월일(3.00점)’, ‘구입가격(2.88점)’이 차지했고, 쌀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품질 등급’이나 ‘쌀의 외관(각각 2.43점)’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원은 품질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품질등급을 제시하는 제품이 많아 선택정보로서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브랜드 쌀 92종 가운데 품질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한 제품이 71.7%(66종)에 달해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쌀의 등급표시는

특·상·보통 등급으로 표시하되, 등급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미검사’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쌀의 품질과 관련해 13.8%(60명)가 불만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묵은쌀 느낌이 난다(66.7%)’는 불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밥의 질감이나 맛이 이상하다(36.7%)’, ‘벌레가 발생했다(23.3%)’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브랜드 쌀의 품질 등급 표시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쌀을 구입할 때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품질 좋은 쌀을 구입·섭취하기 위해서는 ▲계진 쌀이 없고 쌀알이 투명할 쌀 선택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온도가 높지 않은 곳에 보관(냉장보관)하며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최근 3년간 신혼부부 혼수비 분석해보니



14일부터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에서 대형 웨딩박람회 행사인 ‘Spring Wedding Fair’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 해 8월 열렸던 웨딩패션쇼 모습. <광주신세계 제공>

혼수, 꼭 필요한 것만 산다

준비비용 100만원 감소... ‘스·드·메’ 소비 큰 폭 증가

광주신세계 14~23일 ‘Spring 웨딩 페어’ 15일 패션쇼

결혼식 수요가 가장 많은 계절 중 하나인 봄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예비 신혼부부들의 혼수 준비 트렌드가 ‘알뜰형 소비’로 바뀌면서 혼수 구입 비용이 3년 전 보다 최대 1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신세계는 13일 최근 3년 동안 백화점과 이마트 광주점에서 신혼부부 혼수 준비용품들의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신혼부부 고객들이 지출한 ‘혼수 품목’의 총 구매비용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혼수용품 준비에 있어 예물·예단 등과 같은 품목들의 ‘가짓수’와 ‘소요비용’을 간소화하는 대신 꼭 필요한 품목 2~3개에 집중하는 이른바 ‘알뜰형 소비’가 자리 잡은 영향으로 파악된다.

실제 광주신세계 생활매장에서 판매되는 예단세트의 경우, 고객들이 풀세트를 200~230만원선에 구매했던 3년전과는 달리, 지난해에는 풀세트 구매를 자제하고, 대신 필요한 품목만 골라서 예단세트를 구성하는 일명 ‘선택형 예단’의 구매 비중이 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선택형 예단’으로 구성할 경우, 요이불, 베개, 방석, 4계절이불, 침대커버세트 등 모든 예단 품목을 풀세트로 구성했을 때보다 최대 10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이란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아울러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도 혼수 품목 구매단가가 최대 50만원까지 저렴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고대홍 광주신세계 이마트 가전매장 판매책임자는 “최근 3년 간 혼수 품목 구매동향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판매됐던 상품은 TV와 세탁기다”라며 “TV의 경우 3년전에는 평균 구매단가가 200만원선이었던 반면 지난해부터 50만원 가량 줄어 150~160만원대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세탁기도 110만원선의 저가형 모델이 약 40% 가량 신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혼수용품의 소비트렌드가 ‘실속형’으로 가고있는 반면 결혼식 당일 필요한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에

대한 소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와 전문 웨딩컨설팅업체인 ‘하야로비 웨딩드레스’가 공동으로 20~30대 신혼부부 고객 2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드메’의 실제 지출비용을 ‘290만원’으로 응답한 고객이 47%로 가장 많았다.

하야로비 관계자는 “지난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지출했던 스드메 평균 비용은 290~320만원선이었다”며 “이는 3년전과 비교해 9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지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결혼식에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어하는 부부의 심리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혼수 트렌드를 반영, 광주신세계와 하야로비 웨딩드레스는 대형 웨딩박람회 ‘Spring Wedding Fair’를 14일부터 23일까지 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서 개최한다.

15일 오후 2시30분과 오후 5시에 최신 웨딩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웨딩 패션쇼’가 펼쳐지고 행사 기간 허니문 패키지 및 웨딩촬영권을 증정하는 결혼 행사 등을 진행하는 등 신혼부부 고객을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전대1분)

★전대상대2분상가원룸(용봉지구코너)★
신축 4층 룬 21개(1층 상가 2칸, 룬 18개 4층 주택)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엘리베이터 완비, 최고위치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전대정문후문1분상가원룸★
신축 4층 룬 12개(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420만 매가 6억7천 (보 5천, 용 1억 2천)

★화정동5층상가원룸(신동아아파트정문)★
룸 27개, 1층 상가 80평(1층상가, 2층룸 9개, 3층룸 9개, 4층룸 9개) 월수익 1400만(1년 1억7천 수익) 매가 21억(보2억, 용 7억)

★수원지구상가(수익형, 확실보장)★
1층상가(17.5평) 대면5차 A후문 매가 3억 5천보2천, 월130만, 용 2억
3층상가(85평) 모이엘가 A후문 매가 3억 5천보3천, 월200만, 용 2억5천
3층상가(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 매가 2억 8천보3천, 월150만, 용 1억5천

1층(18평) 대면5차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45평) 모이엘가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보3천, 월150만, 분할개

★빌라형원룸매매(쌍촌동운천역2분)★
3천소액투자자호부장(연금처럼수익발생)
-원룸형매매 3800만 주택 11평 (보 200만, 월 30만, 용 1,000만)
-원룸형매매 4000만 주택 12평 (보 200만, 월 32만, 용 1,000만)
-투룸형매매 4800만 주택 14평 (보 300만, 월 40만, 용 1,500만)
-원룸 임대 즉시입주가 possible (원룸 보 200만, 월30만/투룸 보300만, 월 40만)

신한공인중개사
☎062)521-1060, 010-6677-0144

여수 상업지 토지매매

여수시 중앙동 상업지 코너

기업은행 뒷 (옛 재중병원자리) 중심상업 소풍거리

154평 (매가 8억2천) 최고위치 신축 5층 이상 가능 (건폐율 90%, 용적률 800%이상)

웃메이커, 커피숍, 편의점 신축 가능

(주)대화이앤씨
010-6670-9800
010-6677-0144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금매 광주은행 본점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금매, 지하철 상촌역 사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평)병원·사육·학원·자동차 정비시설 등 적합 7억6천
- 쌍촌동 2층 주거지 674㎡(204) 다가구, 다세대 적합 매입가에 매도 3억1500만원 투자에도 적합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9억6천
- 식당건물 금매 금남로3가 부근 소남도로 집 대지 149평 건평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선 법인인전 7억6천
- 신축 쓰리룸 건물 북구 우산동 대지 516㎡ 12세대 8억9천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5천만원
- 모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매출6억2천 매도 8억3천
- 사할적합 건물 활판군 월이면 땅 2657㎡(804)건물 2동 57평 은행 2억 기도원 할수 있는 산이 있는 주택과 교환가능 5억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신축식당 대지 3537㎡(1070)건물 148평 은행 3억 임대는 5천에 3백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5억8천
- 북동 상업지 992㎡(300)오피스텔, 생활주택 등 다용도 8억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중인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품을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대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희망공인중개사

고객님의성공을희망합니다

상가/건물

- ▶ 상무지구 신축건물 매 75억
- ▶ 화정동 교원공부근 1층구분점도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영프랜차이즈 입점)
- ▶ 계림동사무나건물-일부층 원룸 매 17.5억(보8천,월8백,용9.5억 포함 직영수입 월천만)
- ▶ 월계동LCA워 2층상가 960㎡ 매 19억, 분할개(대형병원, 학원, 의 스프렌차이즈 적합)
- ▶ 서구 이마트상가 1,800㎡ 매 10억(보 1.1억, 월610만, 용5.9억포함)
- ▶ 신창동 상가건물 매매 27억, 매매 15억

대지/전답

- ▶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 매매 26억
- ▶ 서구 마북동 생산농지 담 5,400㎡ 매매 21억
- ▶ 북구 용두동 대지 2,050㎡ 매매 6.9억
- ▶ 북구 문흥동 교도소부근 집중지 6,300㎡ 매매 50억
- ▶ 북구 신안동 대지 3,100㎡ 매매 36억
-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29,800㎡ 39억
-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전 17,000㎡ 매매 5.2억

기타

-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용 5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상담, 접수 환영합니다

서구 치평동 리안동신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 010-5536-0382 062) 373-0382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 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 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 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됨,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점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